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다시 '솔솔'

본청 외 사무실 7곳에 흩어져 공무원 불편·민원인 혼선 문수청사 안전 문제로 통합론 제기...시, 대책 마련 고심

관련 민원별로 정해진 청사를 찾아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문수청사의 안전이 지적된만큼 이번 기회에 흩어져 있는 시청사를 통합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이른바 3역(廳)과 통합해 여수시가 되면서 본청은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다.

행정구역은 통합됐지만, 여전히 청사는

여수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로 분산돼 업무를 보고 있다.

크게 보면 3개 청사지만, 체육지원과는 전남경기장, 산림과와 공원과과는 망마경기장, 관광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등은 옛 보건소에 있어 사실상 본청을 제외하고 7곳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사무실이 분산돼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결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본청으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와야 한다.

민원인들도 미리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1청사를 찾았다 다시 사무실을 확인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

다. 최근에는 문수청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시청사 통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수청사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3층짜리 학교 건물로 여수시는 2016년 여수교육지원청과 3년간 대부계약을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단과 해양수산복지국, 여수시기록관 등이 들어서 있으며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수시는 입주 당시 15억원을 들여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조립식 철골주차장을 만들었다.

여수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오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안전 보장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할지, 통합청사 건립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다.

여수시는 2004년에 제1청사 터 등 일대 6만여㎡에 600억원을 들여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여수박람회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건립 계획을 미뤘다.

2016년에는 전남도교육청이 옛 돌산청사에 국제교육원을 짓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사 통합론이 제기됐으나 예산 문제로 유야무야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청사 통합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통합 청사 부지 선정, 예산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학생과 학부모, 후원기업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희망날개 교복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여수시 제공)

'희망날개 교복나눔 한마당 행사' 성료

여수산단 11개 기업 7200만원 후원 상생 앞장

여수시는 최근 흥국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후원기업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날개 교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복 걱정 없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와 여수국가산단 기업, 여수 YMCA, 국제와이즈맨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여수산단 11개 기업은 교복 나눔 행사에 72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 참여 기업은 GS칼텍스(주), (주)LG화학, 여천NCC, 롯데케미칼(주), 롯데MCC, 삼남석유화학(주), 한 국바스프,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 금호폴리캠, 금호미쓰이화학 등이다.

시는 후원금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복지 위기 가구 고등학교 신입생 240 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2019 여수지역 중·고등 학교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열렸다. 이날 마련된 교복과 체육복 1500점은 학생, 학부모에게 대부분 팔리는 인기를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운영팀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은 "우리 학생들이 당 당한 지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와 정성이 담겨 있다"며 "여 수국가산단은 지역민과 함께 상생 발전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사계절 담아주세요 관광사진 공모전 실시

아름다운 여수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사진을 선정하는 2019년 여수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이 진행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월별 지정테마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접수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사진 테마는 월별 2개 주제로 여수의 일몰, 여수의 야경, 여수의 단풍 등 총 24개로 구성됐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작품사진(11×14인치)과 이미지 파일, 응모지원서, 출품표를 시 관공과로 제출(방문·우편)하면 된다.

응모지원서, 월별 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제 2019-308호)되어있으며,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다.

시상금은 최우수(1명) 300만원, 우수(1명) 150만 원, 장려(7명) 60만 원, 입선(31명) 3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이다.

입상작은 주제적합성, 내용충실성, 소재상징성, 작품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수시 관광달력, 홍보물, 관광지도 등 여수 홍보에 활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며 "사진작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시민 공감 올해 대표 브랜드 사업 3건 확정

울촌~화양 여자만 갯노을 조성

똑똑한 재활용 로봇 자판기

노후 수도관 정비로 맑은물 공급

여수시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올해 대표 브랜드 사업 3건을 확정했다.

3건의 사업은 여자만 갯노을 조성, 재활용 로봇 자판기, 노후 수도관 정비다.

우선 브랜드 사업 중 시민이 가장 선호한 시 대표 과제는 "걷는 재미! 듣는 재미! 여자만 갯노을 조성"이었다.

울촌~화양 일원에 갯노을길과 해상데크를 조성해 남해안 관광 허브 도시의 토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한 재활용 로봇 자판기'가 차지했다.

캔과 페트병을 자판기에 넣으면 포인트 적립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재미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은 '노후 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시설을 개량하고 수돗물 사용 가정에 무료로 수질검사를 지원해 시민 건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시장평가위원회와 온라인 시민 설문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우수 부서를 표창하고 시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시 대표 브랜드 사업은 과제 선정에서 사업 추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보완해가는 시민중심 시책이다"며 "보다 나은 여수,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시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기차 1780만원 지원

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여수시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자동차는 1780만원, 이륜차는 350만원까지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전기자동차 165대, 전기이륜차 80대며, 자동차의 경우 다자녀우선 물량 22대, 일반 초소형 물량 10대가 포함돼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여수시에 분사·지사 등이 위치한 사업자, 법인·단체며, 세대(명)·업체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이륜차 지원대상과 절차는 자동차와 같으며 세대(명)·업체당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



충전하는 전기차. 여수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기차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니라 차량 출고 순이다.

신청서 검토 결과 합격사유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다더라도, 차

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의회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연 1회 이상 시민참여제 평가

행정 투명성 높이기로

여수시의회의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여수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 참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했다.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시민은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을 시장

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론회는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듬었다"며 "시민이 주요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020 정읍 상춘의 해 정읍의 봄 2019~20

정읍만의 특별한 차 한잔 **쌍화차**

맛과 향, 건강까지~

30년 세월 녹아든 전설의 쌍화차 거리!

정읍의 자랑 속지황과 생강과 대추 등 스물 여 가지 약재를 사랑과 정성으로 달여 밤과 은행, 잣 등 고명을 얹으면

정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잔의 보약, 바로 정읍의 쌍화차입니다.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깊은 맛의 쌍화차!

쌍화차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차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행복~

따뜻한 정과 감동은 덤입니다!